

日 노선 줄인 LCC업계, 동남아·러시아로 눈 돌린다

제주항공, 마카오·가오슝 노선 증편
대구-세부 노선 주 4회 신규취항
LCC, 10월 日 60개노선 중단·감편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

일본여행 수요 감소로 노선을 줄이기 시작한 제주항공이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노선에 대한 증편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다른 LCC(저비용항공사)들도 일본을 제외한 타 노선에 취항하거나 증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일본 여행객 수요 감소 대안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인천-코타키나발루, 9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인천-마카오 노선을 각각 주 4회씩 증편 운항한다.

인천-가오슝 노선은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1회, 인천-태국 치앙

마이 노선은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주 2회 증편 운항한다. 대구-세부 노선은 오는 9월 17일부터 주 4회(화·목·토·일요일) 일정으로 신규 취항한다.

제주항공은 또 오는 10월에는 러시아 노선 증편을 계획 중이다. LCC들은 10월 말까지 60여 곳의 일본 노선을 중단

하거나 감편한다.

티웨이항공은 다음달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산-타이중 노선에 신규 취항해 부정기편을 주 3회(화·목·토) 운항하며, 화요일 오전 8시, 목요일 오전 10시 40분, 토요일 오전 9시 부산 김해 공항을 출발하는 스케줄로 운영한다.

에어서울은 인천-다낭 노선의 주간 스케줄을 증편한다. 국토부 제재로 신규 취항이 막힌 진에어도 일본 노선을 감편하는 대신 동계시즌 동남아 노선 증편을 검토 중이다. 이스타항공 역시 동남아 노선 증편을 검토 중이다.

당초 LCC들은 중국 노선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에 취항하는 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신규 취항 및 증편 금지 조치를 내리며 취항일정을 미루거나 조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국내 항공사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중국 일부 노선에 대해 신규 취항 및 정규·임시 증편, 부정기편 운항을 할 수 없다.

제주항공은 중국의 이같은 조치로 ▲인천-하얼빈 ▲부산-장자제 ▲무안-장자제 등 3개 노선이 막혔다. ▲인천-엔지 ▲무안-엔지 ▲인천-난통 등은 제외다. 제주항공은 지난 19일 ▲인천-

엔지 노선에 신규 취항했다. 제주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취항지 중 여행객 수요가 '과부하'인 곳에 한해 내린 조치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동남아노선 증편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지난 20일 일본 대체 노선으로 동남아 노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먼저 인천-클락 노선에 10월 27일부터 주 7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했다. 이밖에 ▲인천-다낭 ▲인천-치앙마이 ▲인천-발리 등에 대해선 증편을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인천-다낭 노선의 부정기편을 신설해 항공편 공급을 늘린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해당 노선에 주 7회 정기편을 운항 중이었다. 여기에 부정기편(주 7회)을 더해 주 14회 운항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주행 중인 코란도 가솔린 모델. /쌍용자동차

취미가 여행 이라면 '금상첨화' 마이카

자동차 시승기

쌍용차 '코란도 가솔린'

부드러운 승차감·정숙성 돋보여
2열에 신장 180cm 성인도 넉넉



코란도 가솔린 모델의 1열 내부. /쌍용자동차

"사고 싶은 차다" 시승을 진행한 후 몇몇 기자들의 입에서 나온 평이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성능, 2000만원대의 판매가격은 3인 가족이나 신혼부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해 보인다. 취미가 여행 이라면 이 차는 '금상첨화'다.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 소재 서울 마리나에서 출발해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쌍용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란도 1.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 모델을 시승했다. 소음과 진동이 많다는 기존 디젤 모델에 대한 평과는 달리 부드러운 승차감과 정숙성이 돋보였다.

고속구간에 진입하자 구간 단속에 주의하며 가속 페달에 힘을 주어 보았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려도 차체 흔들림이 거의 없었다. 단 커브구간에서는 약간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차체제원은 전장 4450mm, 전폭 1870mm, 전고 1620mm다. 작고 다부진 외형과는 달리 내부는 상상이상으로 넓은 편이었다. 조수석을 잘

만 조절하면 2열에 신장 180cm 이상의 성인이라도 무릎 공간이 제법 넉넉하다.

적재공간은 551리터다.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골프백 4개(또는 유모차 2개)와 보스틴백(여행용 손가방) 4개를 동시에 수납 가능하다.

시승 중 자율주행 기능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 보았다. 시속 100km로 맞추자 차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휠은 기어봉 하단에 위치해 있다. 노멀, 스포츠, 윈터 등 총 3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꾼 뒤 고속 주행을 해도 안정감이 느껴졌다.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다. 쌍용차에 따르면 ▲긴급제동보조 ▲차선 유지보조 ▲앞차출발알림 ▲부주의 운전경보, 안전거리 경보 등 첨단 안전사양이 기본 적용됐다.

한편 코란도 가솔린 모델의 판매 가격은 2256~2755만원이다. 디젤 모델보다 190만원 저렴해 가성비 높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연우 기자



현대차, 준대형트럭 '파비스'

내달 출시 신차명 확정, 렌더링 공개
29일 일산 '트럭앤버스 페어'서 첫 선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현대차 준대형 트럭(프로젝트명 QV) 신차의 차명을 '파비스'로 확정하고 내외장 렌더링 이미지를 21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파비스(PAVIS)'는 실용적인(Practical), 개조하기 쉬운(Adaptable), 넓은(Volume),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Information), 안전한(Safety), 경제적인(Economical) 등에서 따왔다.

또한 차명 '파비스'는 '중세 유럽 장방형의 커다란 방패'를 의미한다. 신형 그릴 디자인의 모티브이자 안전성, 편의성 측면에서 앞서나가는 이미지를 추

구한다.

현대차는 경제성, 실용성은 물론 넓은 적재공간, 첨단 안전 사양 등을 충족시킨 준대형 신형 트럭 파비스를 통해 소형에서 대형을 아우르는 트럭 풀라인업을 구축했다.

외장디자인의 전면부 그릴은 단단하고 강한 방패의 웅장한 이미지를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하고 구조적으로 짙어진 디자인을 완성했다.

내장 디자인은 트럭 운전자에게 딱 맞는 레이아웃, 실용적인 편의사양을 대거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현대 트럭앤버스 비즈니스 페어'에서 '파비스'의 실물을 최초 공개한다.

지난 2017년 국내 최초 상용 박람회 '트럭앤버스 메가페어'에 이어 개최되

는 '트럭앤버스 비즈니스 페어'에서는 '공존'을 주제로 기존 내연 기관 차량, 미래 친환경 차량 등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특장차 10종을 함께 공개하는 파비스 존 이외에 ▲올 1월 새롭게 출시한 엑시언트 프로 등을 전시한 '엑시언트존' ▲수소연료전지스택, 수소전기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존' ▲미래 기술 개발 전략을 소개한 '신기술 비전존' 등 다양한 공간을 구성해 고객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공간의 가치를 더한 준대형 트럭 파비스는 현대차 트럭 라인업을 완성하는 새로운 기대주"며 "안전성, 편의성, 경제성, 실용성 등 다양한 장점을 응축해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고급 세단같은 내부 '모하비 더 마스터'

기아차, 플래티넘·마스터즈 사전계약

기아자동차는 모하비 더 마스터 사전 계약을 2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모하비 더 마스터(사진) 가격은 3.0 디젤 모델 플래티넘이 4700~4750만원, 3.0디젤 모델 마스

터즈는 5160~5210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기아차는 모하비 더 마스터의 내장을 넓은 가로형 레이아웃으로 디자인해 고급 세단과 같은 프리미엄한 공간을 연출했다. 또 혁신적 이미지를 구현한 모던한 형상의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했다.

모하비 더 마스터는 센터페시아에 서도어까지 길게 이어져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여하는 우드그레인 가니시, 간결하고 모던한 버튼을 적용했다. 세련된 센터페시아, 다양한 정보를 시원하게 보여주는 12.3인치 대

형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운전자 설정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하이테크한 이미지의 3D 패턴 무드 램프 등이 적용된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모하비 더 마스터는 전장 4930mm, 전폭 1920mm, 전고 1790mm, 휠베이스 2895mm다.

전면부는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 볼륨감 있는 후드 캐릭터라인으로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고급스러운 버티컬 큐브 주간주행등, 첨단 이미지의 풀 LED 헤드램프로 정교함을 더했다.

후면부는 전면부와 통일감 있는 버티컬 큐브 리어 램프,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다운 든든함과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듀얼 트윈팁 테코 가니시, 모하비 전용 고급스러운 엠블럼을 적용했다. /정연우 기자

